

정책참고자료

2018-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행안부, 청년이 주도하는 17개 마을기업 집중 육성** ————— 4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정책 올해 처음 도입해 청년실업 해결 기대 -

2 국민권익위원회

- 다자녀 가구의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 '이용 편해지고 많아진다'** ————— 7
- 한국공항공사·철도공사 등에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 10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 -

4 교육부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방향을 논의한다** ————— 15
-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 18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2곳 기본구상 발표 -

6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서 찾겠습니다** ————— 22
- 이 총리,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제(영상회의),
243개 전 광역·기초 지자체 참석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사회적경제로 내일을 열다

- 2018년「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농업·농촌분야 141개 업체(전체의 41%) 참가 -

28

8 환경부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다

- 환경부, 서울 소재 아파트 10개 단지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35명 시범운영 시작 -

31

9 고용노동부

2018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선발

- 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 -

33

10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 진단’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 7.19.(목) ‘청소년폭력예방’ 주제로 첫 개최 -

37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개최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 발굴을 위한 해커톤 행사도 연계 시행 -

41

12 해양수산부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 7.11(수) 오전 9시 30분,‘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체결 -

45

1

행정안전부

행안부, 청년이 주도하는 17개 마을기업 집중 육성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정책 올해 처음 도입해 청년실업 해결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39세 이하)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17개소를 지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 되어가는 마을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선정된 마을기업 17개소는 서비스, 교육, 문화 등 참신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마을기업에 새로운 자극이 될 전망이다.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디자인 칸』(전북 정읍), 체육학과 출신 청년들이 모여 지역 복지관·아동센터에 ‘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 Go Sports』(대구 중구),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고래기름을 활용하여 양초를 제작하는 『소셜네트워크협동조합』(울산 남구) 등이 대표적이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 또한, 지난 6월 우정사업본부, 농협, (주)이베이코리아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와 우체국 택배비 할인 등을 지원한다.

- 이 밖에도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청년경영인에게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정서 수여식은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7.13~7.15일)가 진행되는 14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 수여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을기업 지정서’와 ‘기업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계획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17개 기업 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마을기업 재지정(2차년도)” 심사결과도 발표했다. 심사결과 총 75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2차년도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요즘 정부의 최대 화두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통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또한, 마을기업도 청년이라는 참신한 자원이 보강되어 더 새로워지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기업명	법인	분야	주사업
부산	진구	청년진구	주식회사	제조업	인테리어 및 카페운영
부산	수영구	협동조합 리워크	협동조합	서비스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부산	기장군	일광협동조합	협동조합	교육	중장비 교육 및 운용
대구	중구	프로젝트G	협동조합	제조업	수제청 및 민박운영
대구	달서구	We Go Sports	주식회사	교육	생활체육교육
울산	남구	소셜네트워크협동조합	협동조합	제조업	페고래기름 비누, 캔들
울산	울주군	라운필하오닉	주식회사	문화	오케스트라운영, 교육
세종	세종	문화공작소 잇다	협동조합	서비스	기업 홍보콘텐츠 개발
경기	안산	아지트섬협동조합	협동조합	서비스	교육장대관, 대안교육
강원	원주	강원문화발전소 협동조합	협동조합	서비스	업사이클링, 디자인
전북	익산	도깨비집	협동조합	서비스	세어하우스
전북	정읍	유한회사 디자인 칸	유한회사	교육	디자인인력 양성
전남	장흥	농촌유학정남진 협동조합	협동조합	교육	곤충사육 및 생태체험
경북	안동	다누림 협동조합	협동조합	제조업	문화행사, 축제 기획
경북	경산	주식회사 마음컨텐츠연구소	주식회사	서비스	온라인컨텐츠 제작
경북	경산	주식회사 바인즈	주식회사	제조업	방향제 제조
경북	의성	농뜨락 농업법인사회	농업법인회사	농식품	농산물 가공품

2 국민권익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 '이용 편해지고 많아진다'

- 한국공항공사·철도공사 등에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 권고 -

-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그런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 주차장 할인을 요청했으나, '다자녀우대카드'가 없어 거절당했음. 당시, 3자녀가 모두 탑승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생각이 들었음 ('17.4월 국민신문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다자녀 감면 신청 시 코레일 역까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함. 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나 우편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됨('18.4월 국민신문고)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됨('18.3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대상 기관	조치 기한
다자녀 불편 요인 해소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지자체 발급 다자녀우대카드 등에 한정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	한국 공항공사	'18.10.
	다자녀 등록·확인 시 역창구 직접 방문	다자녀 등록·확인 시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한국 철도공사	'18.10.
다자녀 감면 도입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없음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도입	인천국제 공항공사	'18.10.
	SRT승차요금 다자녀 가구 할인 없음	다자녀 가구 할인 도입	주식회사 에스알	'19.6.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 -

혁신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 -

- ☐ 청년 예비창업자를 혁신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 개최

< 발대식 개요 >

- ◆ (일시·장소) '18. 7. 11.(수), 11:00 ~ 12:00, D.Camp 6F 다목적홀
- ◆ (참석) 7개 정부부처 담당 과장 등 60여명 내외
- ◆ (내용) ① 사업 추진 경과 발표 ② 부처별 특화 분야 육성 계획 보고
③ 관계부처 업무 협약식 ④ 범부처 추진단 세레모니

- ☐ 범부처 추진단은 부처별 특화분야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청년 혁신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칸막이를 깨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협업추진

- ☐ 예비청년창업자를 선발·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 부처(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금융위)가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 11일(수) D.Camp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 범부처 추진단은 앞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사업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창업 기업 모집 선정과 창업 기업 사업화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오픈바우처)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여,
- 4차 산업혁명 분야 청년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 및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 사업은 ◇ 중기부가 기술 창업 소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 과기부는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AI, VR 분야, ◇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분야,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 ◇ 여가부는 디지털 혁신기술, 라이프 케어 분야의 여성 창업자, ◇ 국토부는 자율협력 주행·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분야, ◇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창업자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 발대식에는 각 부처별로 청년 혁신기업 육성 목표와 계획에 대해 청사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7개 부처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는 간이 협약식도 열렸다.

□ 이날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청년창업자의 세리모니와 함께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하여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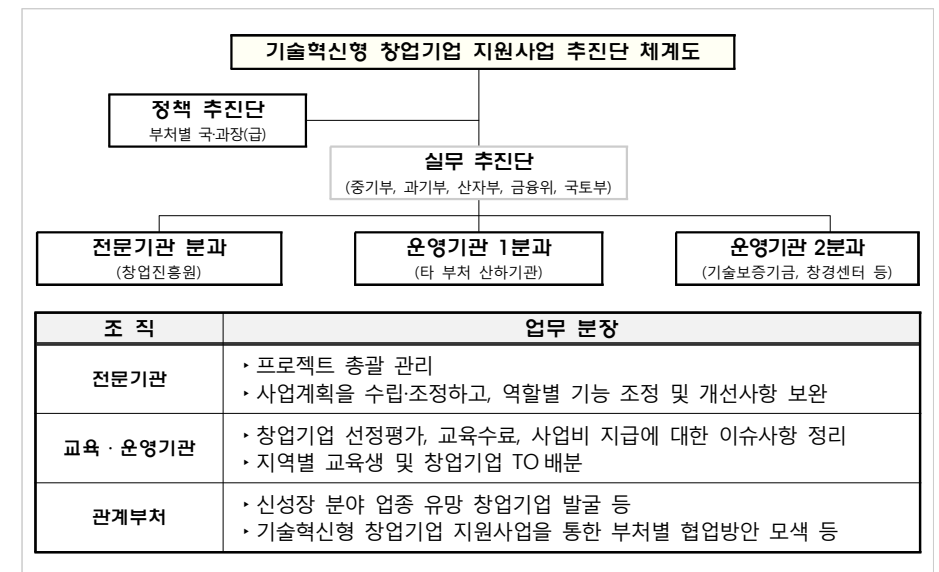
참고 1 범부처 추진 기획단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명칭)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 (설립목적) 사업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창업기업 모집 선정과 창업기업 사업화 관리·운영 등 피드백 수행

□ 주요내용

- (구성)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2개 추진단 방식”으로 구성
 - (정책 추진단 : 부처) 단장 1명(국장) 이하 정부부처 실무자(사무관)를 중심으로 구성, 사업 전반적인 추진방향 등을 논의
 - (실무 추진단 : 운영기관) 정책추진단 밑에 산하기관 팀장급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두고 창업자 선정, 후속지원 등 실무 운영방안 논의



참고 2 범부처 추진 발대식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관계부처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여 출발과 성공을 다짐
- 각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4차 산업혁명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를 약속

□ 행사개요

- (행사명칭) 범 부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발대식
- (주요 메시지) 중기부 - 타부처 간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의 기반 마련
- (일시) '18.7. 11(水), 10:30 ~ 13:00
- (장소) 디캠프(D.Camp)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34)

□ 세부 행사 계획

시간	행사내용	장소	비고
10:30~11:00	'30	참가자 등록 및 티타임	대기실
11:00~11:05	'5	주요 귀빈 소개 및 인사	다목적홀
11:05~11:15	'10	사업 추진 경과보고	
11:15~11:30	'15	관계부처 업무 협약식	
11:30~11:40	'10	추진단 발대식 퍼포먼스	
11:40~11:50	'10	마무리 말씀	
11:50~12:00	'10	기념촬영	테라스
12:00~13:00	'60	케이터링 및 네트워킹	
13:00~13:10	'10	종료 및 해산	

※ 대·내외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변동될 수 있음

참고 3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청년창업자 기준

- 단,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하고, 4차 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

-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픈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이용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물품구매, 재료비, 마케팅비 등)을 인정하되, 최소한의 제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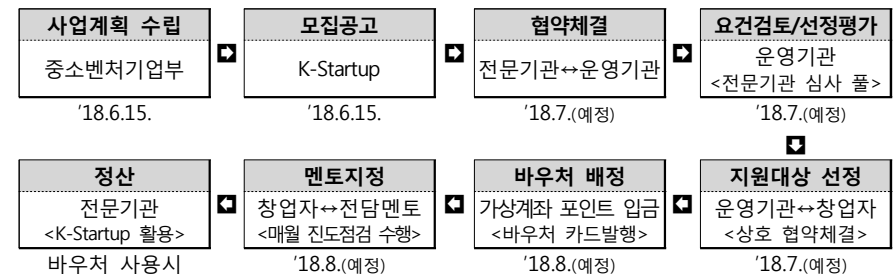
* (예시) 주점, 노래방, 마사지 등 유흥비 사용,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 바우처 사용 전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및 창업·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1,500社 (평균 63.5백만원), 1,013억원

- **(신청방법)**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 중기부 모집 기준 >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방향을 논의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마스터플랜 : 장래의 이상이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으로, 목표나 방침을 구체적인 활동에 연결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계획과 차이가 있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거시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여러 부처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민관합동추진단 협의와 정책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하였다.

※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 (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계고교장협의회

- 이번 공청회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 노동계와 경영계, 교육훈련기관과 재직자 등 **각계각층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마련하였으며,
- 두 차례의 지역공청회와 한차례의 국회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회 및 지역별 공청회 일정 >

구 분	일 시	장 소
지역 공청회(1차)	’18.7.9.(월) 15:00~17:20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지역 공청회(2차)	’18.7.12.(목) 15:00~17:20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국회 공청회	’18.7.18.(수) 14:00~16:20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전문기술인재 양성 방법, 변화에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부부처, 경영계, 노동계, 관련 민간기관, 국민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정책·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핵심역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교육부는 3차에 걸친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경과

□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설계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직업교육마스터플랜 수립 선정('17.7)
 - ※ 국정과제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17.11~)
-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18.1)
 - ※ (정부) 교육부 차관(단장), 기재부·산업부·노동부·중기부·과기부·여가부 국장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직업교육학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계고교장협의회
-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1차~4차, '18.2~7)
-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실무작업반 회의(1~8차 회의, '18.2~6)

□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미래평생직업교육포럼 개최 ('17.7~12)
 - ※ (1차)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직업교육('17.7.25), (2차) 미래 환경변화와 직업 교육('17.8.28), (3차) 미래직업교육정책 방향과 과제('17.12.6)
- 전문가회의, 직업교육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17.10)
- 마스터플랜 대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 ('17.11.~'18.2)
 - ※ 44건의 국민 아이디어 접수, 우수 아이디어 10개 시상
-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별협의체 등 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18.3~)

- ❖ (중등)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 의견 수렴(3.29) 및 중등직업교육 교장 협의회 의견 수렴(4.11)
- ❖ (고등) 전문대 교무처장 협의회 논의(4.13)
- ❖ (산업계) 16개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담당자 의견 수렴(4.5)
- ❖ (경단련) 새일센터 경단여 강사 대상 의견 수렴(5.17)
- ❖ (노동계) 한국노총(6.1) 및 민주노총(6.8) 협의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2곳 기본구상 발표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하여 왔다.

* 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초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

** (세종) 도시시물레이션 경진대회 공모(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

-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

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하
였고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법정 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7.16)을 거쳐 확정 및 발표

□ 오늘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
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하여 '사
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오늘 발표회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여
각 산업계를 대표해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스마트도시협회는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협회 구성원(민간기업)과 함께 기본구상의 세부 실행방안 마
련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 벤처기업협회도 기본구상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범
도시가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혁신 산
업생태계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하
고 협회 차원에서도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
다.

참고 1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개요

□ 브리핑 개요

- 일 시 : '18. 7. 16(월) 14:00~15:00
- 장 소 :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 포럼실
- 참 석
 -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장,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총괄기획팀장(사회자)
 - (국토부) 제1차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장, 지원팀장 등
 - (부처)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 2팀 과장, 과정부 정보화기획과장,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 등
 - * 산업부, 환경부 담당자 참석
 - (지자체) 부산시 신성장산업국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 (총괄계획가) 정재승(세종), 천재원(부산)
 - (협회) 스마트도시협회 김준근 회장,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사무국장
 - (시행사) LH 스마트도시본부장, K-water 사업총괄 이사

□ 브리핑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스마트시티 홍보동영상 상영	
14:00~14:01	개회 및 진행 안내	4차위 총괄기획팀장
14:01~14:03	인사 말씀	4차위원장
14:03~14:05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경과 등 보고	특위 위원장
14:05~14:15	세종 5-1 생활권 기본구상안 발표	정재승 MP
14:15~14:25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구상안 발표	천재원 MP
14:25~14:30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참여 제안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
14:30~15:00	기자 질의응답(세종/부산 온라인) 진행	4차위 총괄기획팀장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서 찾겠습니다

- 이 총리,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영상회의),
243개 전 광역·기초 지자체 참석 -

- 정부는 7월 11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 (참석) 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교육부·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장, 학계·업계 관계자 6명 등
- 이번 회의에서는 24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역관광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와 '여수'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17. 12. 18) 시 발표한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고용지표 악화, 지역 기반 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지역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발표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화하여 지역관광 거점 육성, 해양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안건 1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 최근 국내여행 증가, 방한시장 회복 등 관광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관점의 지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지역관광 전략거점 조성

-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우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 유일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비무장지대(DMZ) 문화관광축제, 걷기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세계인이 널리 찾는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한 올림픽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강원지역을 **‘겨울·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교통, 콘텐츠가 집적된 핵심도시를 **관광전략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 고부가산업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 *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② 매력적인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확충

- 지역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 섬·바다·갯벌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섬**을 육성하고, 서남해안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남해안 관광루트’**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계망으로 조성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명품숲 50선** 발굴, **새로운 생태관광지 지정** 등 **농촌·숲·산림**을 활용한 **생태·휴양·체험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역사·문화** 등을 활용, 한국만의 고급 관광소재 **‘코리아 유니크(Korea Unique)’**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지역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는 한편, **‘우리 동네 명소 찾기’** 등 **일상의 삶을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③ 지역 관광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계획**하고, 중앙정부는 단계별 지원·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 지역관광 **평가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역량 있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사회 스스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업계를 아우르는 **지역관광추진기구**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 관광객이 쉽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등을 활성화**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속 추진** 등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늘어난 여가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 관광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관광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에 있는 관광벤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소재 청년기업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양벤처 등 분야별 벤처창업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등 산·관·학 공동으로 지역관광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지역 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를 확대하고, '생태관광 디렉터', '산림관광코디네이터(그루매니저)', '농촌관광 플래너' 등 지역 관광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안건 2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

-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 모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①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 우선,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해양치유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고, 신규 마리나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창업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을 중점 개발하여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 마리나와 상호 연계하여 마리나 계류선석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대만과 홍콩 등으로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중레저 여건을

개선하고 요금 신고의무, 안전시설물 기준 등 규제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소금, 해송, 진흙(머드) 등 천연 해양자원 치유효능 검증 및 사업화 모델 개발을 통하여 해양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촌의 복지 증진과 함께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② 해양레저관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비

- 둘째, 낙후된 인프라(기반시설) 보강 등 해양레저관광 하드웨어를 정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 어촌·어항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겠습니다.
 - 어촌 문화자원과 어업유산 발굴·조사하고 임진왜란 대첩지 등 어촌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유(U)자형 바다관광 항로를 개발하겠습니다.
 - 자생적으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촌계장·사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귀어·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어촌뉴딜 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 요트, 카약 등 해양레저기구 체험 관광 거점으로 해양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섬, 해수욕장 등 육·해상 해양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상관광길[바다로(路)]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바닷가 습지 등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③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 해양레저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교육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 요트, 카누 등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기구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확대('17년 64개소 → '18년 80개소)하겠습니다.
-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낚싯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교육관 등 해양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합해양어촌관광 홍보지(해도지)발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함께 해(海)' 사업 등을 통해 보편적 해양레저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사회적경제로 내일을 열다

- 2018년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농업·농촌분야 141개 업체(전체의 41%) 참가 -

《주요내용》

◆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요

- (일시·장소) '18.7.13~15, 대구 EXCO
* '18.7.13.(금)~7.14.(토) 10:00~18:00/ 7.15.(일) 10:00~16:00
- 기념식: 7.14(토) 14시 대구 EXCO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13개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조직
- (참가)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345개 업체, 260개 부스 참가)
- 농촌공동체회사(13개) 및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7개) 참가
- 전체 참가업체 중 농식품 분야 141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13~15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농업·농촌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이 **141개소**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 이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농업을 자원으로 하거나 농촌에서 활약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만큼 많고, 농업과 농촌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17년 협동조합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5,045개***에 이른다.

* 인구 30만 미만 시·군 131개 농촌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특히, 최근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수(천 회) : ('14) 131 → ('15) 143 → ('16) 145(전체 귀농·귀촌가구의 43.2%)

-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판로확보가 어려운 영세소농의 농산물 구매 지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반찬배달 및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농식품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 13곳과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7곳이 참가하여 눈길을 끈다.

* 붙임 : 박람회 참가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현황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거나 사회서비스·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11년부터 우수한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하여 홍보·마케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18년 33개소 지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복지기관·학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9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18년 9개소 지원(개소당 6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18년도 농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템을 '19년도부터 창업자금·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역시 '19년부터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실천조직간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촌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 박람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평가하면서,

- “특히 박람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농업·농촌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자원을 가진 만큼, 사회적경제를 통한 보람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농업계가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다

- 환경부, 서울 소재 아파트 10개 단지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35명 시범운영 시작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

-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는 7월 중순부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10곳에 안내 도우미 35명이 시범 투입되고,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 이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지 내 지역주민으로 선발됐으며, 아파트 내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내 도우미가 직접 이웃 주민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발대식도 마련했다.
-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발대식은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안내 도우미 35명에게 위촉

장이 수여된다.

-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내 도우미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발대식 계획.

※ 관련 안내도우미 활동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붙임1

분리배출 현장안내도우미 시범단지 현황

□ 10개 단지 11,450세대 대상, 현장 안내도우미 35명, 책임 도우미 10명 투입

※ 책임도우미 :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양성한 분리배출 전문요원

순 번	아파트명	세대 수	주소	분리배출 요일 및 시간	현 장 도우미	책 임 도우미
1	양평동 현대 6차	770	영등포구 선유 로 207	매주 금, 06시~10시	3명	1명
2	당산동 현대 3차	509	영등포구 당산 로 41길 23	매주 토, 06시~10시	3명	1명
3	신트리 3단지	537	양천구 신정로 290	매주 수, 18시 ~ 익일 09시	3명	1명
4	SK북한산시티 (임대)	1497	강북구 솔샘로 174	24시간 개방	4명	1명
5	SH 주택공사 신내 10단지	1432	중랑구 신내로 115	24시간 개방	4명	1명
6	중계주공6단지	600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41	매주 토, 20시 ~ 익일 08시	3명	1명
7	청화	578	용산구 장문로 37	매주 월, 06시 ~ 익일 10시 매주 목, 06시 ~ 익일 10시	3명	1명
8	SH 주택공사 관악드림타운	1843	관악구 구암길 106	매주 월, 09시~ 13시 매주 금, 09시~13시	4명	1명
9	남산타운	3116	중구 다산로 32	매주 일, 09시~ 24시 매주 월, 09시~24시	5명	1명
10	마포태영	568	마포구 독막로 266	24시간 개방	3명	1명
계		11,450			35명	10명

9

고용노동부

2018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선발

- 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 -

-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정부포상 6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10점)를 선발하였다.
- 이번에 선발된 포상자는 의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교육, 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한 사회적기업 및 개인, 단체가 선발되었다.

<산업포장>

- 산업포장은 국내 대표적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의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 롤모델을 제시한 경창수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 2017년 기준 노동자 100명(취약계층 31명), 조합원 5,732명, 연 매출액 44억원으로 2000년 사업초창기 보다 사업규모면에서 20배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새안산의원, 새안산상록의원 등 9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17년 97,276명에게 의료, 노인돌봄, 방문 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
- 특히, 경창수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에 18년간 몸담으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설립,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 표창>

-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은 (재)아름다운가게는 2008.7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2호 사회적기업으로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가치를 발굴한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잡화, 도서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복지사업('17년 40억, 수혜인원 79,531명)을 펼쳤다.
- 또한, '11년부터 매년 매출액의 10%를 「아름다운가게 뷰티폴펠로우」 사업에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가를 육성하는데 힘썼다.

* (지원내용) 3년간 매월 활동비 150만원 지원, 국내외 연수 등

* 동구발(발달장애인의 도시텃밭 가꾸기 및 천연비누 제작), 두손컴퍼니(홈리스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류 유통업) 등 사회적기업가 성장 지원

-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는 카톨릭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 교육,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성직자, 신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을 “세상학교”를 운영하여 총 159명 배출, 연 1~2회 워크숍 개최 등 종교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 '15년부터 3대 종교계가 연합하여 사회적기업 3대 종교계 공동행사 정례화 등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 서울교구(약 230여 개 본당), 의정부교구(약 80여개 교당)의 주보 간지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홍보, 평화방송, 평화신문 연계 사회적가치 확산 홍보 등

<국무총리 표창>

-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삼성떡프린스 대표 최종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떡 제조기술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

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 천연재료 사용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받았고, 대기업,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이를 통해 7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16. 5월부터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동작구 사회적경제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주)복지유니온**은 전문 영양사로 13명으로 구성된 영양지원서비스팀을 통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복지시설 67개소에 전문식단표, 위생교육·점검 등 영양지원서비스를 무상제공하여 먹거리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 공적 급식시설이 없는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돌봄 복합매장 열린밥상을 운영하여 노인층에게 총 11,070식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내 고령자에게 1,797회에 걸쳐 고령친화 식품 “효반”, 반찬 배송서비스 제공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 **(사)동의애프터스쿨**은 방과후 강사 및 돌봄전담사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를 채용하여 초등돌봄교실 14개교, 초등방과후 10개교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다.

-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및 저소득 밀집지역 내 초등학교에 교육 기자재 무상 보급, 방과후 로봇교실 특강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다.

참고

「2018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포상자 명단

□ 정부포상(6점)

연번	훈 격	분 야	포상자
1	산업포장	사회적기업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경창수
2	대통령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재)아름다운가게
3	대통령표창	기타(단체)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	국무총리표창	사회적기업가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삼성떡프린스 대표 최종대
5	국무총리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주)복지유니온
6	국무총리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사)동의애프터스쿨

□ 장관표창(10점)

연번	훈 격	분 야	대 상
1	장관표창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양상블 이사장 이옥주
2	장관표창	사회적기업가	목포YWCA희망지원센터 대표 이혜경
3	장관표창	사회적기업가	(사)서울오케스트라 이사장 김희준
4	장관표창	사회적기업가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대표 오천호
5	장관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주)소박한풍경
6	장관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사)일하는사람들
7	장관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주)지엔그린
8	장관표창	사회적기업(단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	장관표창	기타(개인)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성훈
10	장관표창	기타(개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조한수

10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 진단’ 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 7.19(목) 청소년폭력예방 주제로 첫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시각에서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릴레이간담회(‘청소년, 할 말 잇It수다’)를 마련한다. 그 첫 번째 자리로 7월 19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구 을지로 소재)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주제로 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 청소년 16명이 참석해 청소년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교육현장에서의 대응 상황과 예방을 위한 제안 등을 말한다.

□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 문화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성세대 시각으로 청소년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크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 관련 각 분야에서 릴레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소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 이후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양성평등(성별혐오 문제 포함) 등을 주제로 2~3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히 첫 주제인 ‘청소년폭력예방’ 관련해 “청소년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익숙한 문제로 여겨지면서 묵인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저항해야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릴레이 간담회’(청소년, 할 말 It수다) 개요.

2. ‘또래상담’ 개요

붙임 1

청소년문화 진단' 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추진 개요

□ 제1차 간담회 추진개요

- (일시/장소) 7.19(목), 15:00~16:30/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참석)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 등 16명
- (논의내용)
 - 청소년 폭력 발생의 원인 및 과거에 비해 최근 변화 현상
 - 청소년 폭력 경험 또는 목격 시의 대처 경험 등(직·간접경험 포함)
 - 학교폭력 교육 또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건의사항 등

○ (진행내용)

시간 (분)		내 용	비고
15:00~15:05	(5')	▪ 개회	사회자
15:05~15:10	(5')	▪ 모두발언	여성가족부장관
15:10~15:15	(5')	▪ 참석자 소개	
15:15~16:20	(65')	▪ 논의	
16:20~16:30	(5')	▪ 마무리 및 기념촬영	

□ 또래상담이란

- 일정한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지원함으로써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 또래상담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은 친구·동료가 1순위임
※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17년 청소년백서) : 친구·동료(44.4%) → 부모(24.1%) → 스스로 해결(21.8%) → 형제·자매(5.1%) 순
-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학교적응 등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임
※ 대인관계, 의사소통, 교우관계, 학교적응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 또래상담 연혁

- 1994년 - 2011년 :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 2012년 : 범정부 학교폭력근절 대책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교육부 공동 또래상담 사업 추진 및 초·중·고 확대 운영
- 2017년 : 또래상담 지도교사 직무연수 제도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교총 업무협약)

□ 또래상담 운영 현황('17년)

- 또래상담자 활동 인원 : 247,386명(초 : 49,758명, 중 : 90,016명, 고 : 107,612명)
- 또래상담 운영 학교 : 8,005개교(초 : 3,554개, 중 : 2,563개, 고 : 1,888개)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 발굴을 위한 해커톤 행사도 연계 시행 -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 이 7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창립된 '도시재생 협치포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지역 순회 포럼으로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도시재생 협치포럼('18년 3월 창립) 개요 >

- (목적) 현장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운영
- 지역 단위의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별로 협치포럼 운영
- (구성)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을 공동대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서울 은평구 등 44개 기초지자체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공기업, 국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개 중간지원조직, 나눔과 미래 등 4개 시민단체

- 지역 순회 포럼의 첫 단추인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기초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하여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는 물론 소상공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협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재생 지역 협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또한, “지난해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 68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7월 내 수립되어 국비가 본격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해 줄 것”과 함께, “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 >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를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 1차 해커톤: ' 18. 2. 23. ~ 24, 영등포구 캠퍼스디에서 개최

○ 해커톤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활동가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 특히, 이번 해커톤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내 청년, 주민, 사회 공헌 기관 및 지역 금융기관과 타 지역의 청년,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사례,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사례 등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 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가 5명씩 각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여 집중 컨설팅 진행('18년 상반기 33팀 선정, ' 18. 5.)

○ 이러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금융기관·사회공헌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커톤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개최해 지역 단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협력적 협치 체계가 보다 활발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8.7.18 (수), 13:30~18:00 /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 (참 석)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포럼 대표 및 위원장, 기초지자체장('17년 뉴딜사업 선정지, 전북지역 단체장 등),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 유관 기관장(공공, 민간) 등 200여명
- (주최) 도시재생협치포럼, (주관) 전주시, 국토연구원, (후원)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월간지방자치
- 프로그램(안)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2:00~13:00	60분	오찬 (기와 한정식)	송경용 대표 등
13:00 ~ 13:20	20분	이동 (팔복예술공장)	
13:20 ~ 13:30	10분	팔복예술공장 소개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감독
< 개회식 : (사회)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			
13:30 ~ 13:37	7분	개회 및 내빈 소개	
13:37 ~ 13:40	3분	인사말	송경용 상임대표
13:40 ~ 13:43	3분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13:43 ~ 13:46	3분	축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3:46 ~ 13:49	3분		송하진 전북도지사
13:49 ~ 13:52	3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3:52~13:55	3분	격려사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3:55 ~ 14:00	5분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 도시재생 협치 세미나 : (사회)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			
14:00 ~ 14:15	15분	[소개] 도시재생 뉴딜과 도시재생 협치포럼의 역할	김영배 공동대표
14:15 ~ 14:30	15분	[발제1] 도시재생 뉴딜의 실천적 추진방향과 민·관 협치구조 조성방향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14:30 ~ 14:45	15분	[발제2] 현장중심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세종시 김동호 센터장
14:45 ~ 15:00	15분	[발제3] 도시재생 협치의 시대를 준비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전주	전주시 김창환 센터장
15:00 ~ 15:20	20분	휴 식	
< 타운홀 미팅 : (진행) 김승수 전주시장 >			
15:20 ~ 18:30	160분	아거별 부임 토론 등	

12 해양수산부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 7.11(수) 오전 9시 30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과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 삼을 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수부와 문체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융합되어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해수부는 해양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도 “관광이 국가핵심산업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로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관광업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해양업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다.” 라며, “해양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체부 - 해수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1부

붙임 1

해수부-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1. 체결식 개요

- (추진배경)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구축
- (일시) 2018. 7. 11.(수), 09:30~43(13분)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 전)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제1브리핑실)
- (주관기관/체결주체)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 (주요 협약내용)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협력, 해양관광 제도개선 및 교류 협력 등

* 국가관광전략회의 : '18.7.11(수) 10:00~12:00,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2. 체결식 진행계획

시간	소요시간	세부 진행 내용	비고
09:30~09:32	2'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09:32~09:34	2'	• 추진경과 및 협약내용 소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09:34~09:38	4'	• 인사말씀 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09:38 ~ 09:40	2'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09:40~09:42	2'	• 기념 촬영	
09:42~09:43	1'	• 폐 회 *이후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으로 이동	